

## 鮑照의 <學劉公幹體>시

宋 永 程\*

<目次>

I. 緒言	1. 劉楨 모의 배경
II. 詩題에 따른 鮑照 모의시의 유형	2. 모의 양상
III. <學劉公幹體>시	IV. 結語

### I. 緒言

吉川幸次郎은 典型을 존중하는 것을 중국문학의 특징의 하나로 지적하였는데,<sup>1)</sup> 이것은 다시 말하면 模擬가 중국문학의 중요한 전통의 하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劉勰이 작가의 작품 풍격의 결정 요소로 제시한 네 가지 중에는 ‘學’이 들어있는 점,<sup>2)</sup> 黃庭堅이 ‘創新’의 방법으로 제시한 ‘點鐵成金’과 ‘換骨奪胎’가 기본적으로 이전의 작품에서 표현이나 意境을 빌려오는 것인 점,<sup>3)</sup> 明의 전·후칠자가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구호를 내걸고, 淸의 시론가나 시인들이 당시나 송시를 나름의 전범으로 내세운 것도 모두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 啓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教授

- 1) 吉川幸次郎 著, 陳順智·徐少舟 譯, 《中國文學史》(제1판;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7.9), 23-26쪽.
- 2) 劉勰, 《文心雕龍·體性》: “夫情動而言形, 理發而文見, 蓋沿隱而至顯, 因內而符外者也. 然‘才’有庸雋, ‘氣’有剛柔, ‘學’有淺深, ‘習’有雅鄭, 竝情性所鑠, 陶染所凝, 是以筆區雲譎, 文苑波詭者矣.”
- 3) 吳台錫, 《黃庭堅詩研究》(대구: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5), 192-229쪽 참조.

중국문학에서 모의의 전통은 《楚辭》와 漢代의 賦 및 악부시에서 이미 시작되어, 建安 연간과 西晉 太康 연간에 크게 성행하였다. 劉宋 시기에는 이러한 모의 기풍이 더욱 성행하였다.<sup>4)</sup> 특히 포조는 藤井 守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생명을 악부시 창작에 걸었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지녔는데,<sup>5)</sup> 포조의 악부시 86수는 기본적으로 전부 擬作이다. 실제로 그의 시는 제목에서 모의를 명시하였거나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속성상 모의가 분명한 악부시 등이 현존 작품의 과반수가 되며, 나머지 작품들도 대부분 用典이나 내용 혹은 수사 기교 등의 측면에서 이전의 문학 작품을 많이 활용하였다. 학습과 모의 대상도 《詩經》, 《楚辭》, 漢魏 악부와 고시, 南朝 민가, 전대와 당대의 문인을 망라하여 매우 광범하다.<sup>6)</sup>

본고에서는 먼저 제목에서 모의를 명시한 작품을 대상으로 제목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 후, 劉楨 모의의 배경과 <學劉公幹體> 다섯 수의 모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 II. 詩題에 따른 鮑照 모의시의 유형

현재 통행하는 포조 문집의 주석본은 淸 同治 7년(1868) 錢振倫이 주를 단 《鮑參軍集注》와 여기에 1923년 黃節이 補注한 《鮑參軍詩補注》, 전진륜의 손자 錢仲聯이 여기에 다시 宋本과 《文選》, 《樂府詩集》 등 문학선집의 주와 《藝文類聚》, 《初學記》, 《太平御覽》 등의 類書를 참고

4) 郭麗平, <劉宋時期的模擬詩創作與文學接受>,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8:5(2010.9) 참조.

5) 藤井 守, <鮑照의樂府(一)>, 《中國中世文學研究》 4(1965.3), 15쪽.

6) 宋永程의 <鮑照 模擬詩 試探>(《陸士論文集》 24(1983.6)), <用典을 통해 본 鮑照 詩의 楚辭 受容>(《中國學誌》 7(1992.2)), <鮑照의 前代 文人詩 受容>(《中國學誌》 8(1993.2)), 《鮑照詩 研究》(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4. 8) 제2장 <鮑照詩의 淵源> 참조.

하여 增補하고 集說하여 교정을 가한 《鮑參軍集注》이다. 이 통행본에 근거하여 의작임을 명시한 작품만 추리면 79수가 된다. 이들은 원시의 제목 앞에 동사 한 자를 붙여서 의작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代’, ‘擬’, ‘紹’, ‘學’ 네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代’體, ‘擬’體, ‘紹’體, ‘學’體로 부르기로 한다. 포조가 모의시임을 천명하면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唐海濤도 이 점에 주의하여 간단히 각 글자의 의미를 지적한 바 있지만,<sup>7)</sup> 본장에서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살피기로 한다.

‘代’體 모의시는 모두 37수의 악부시인데, 대부분 한위의 고악부가 모의 대상이지만 위진남북조의 문인 악부를 모의한 것도 있다. ‘代’체는 漢代 이후 악부시가 일반적으로 ‘代’자를 붙여 모의를 표시하던 관례와 무관하지 않다. ‘代’자는 《說文解字》에서는 ‘更’이라고 풀이하였으니 ‘변경하다’ ‘대체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모의 대상 작자나 작품의 인물과 서정, 서사 등을 대체함을 가리킨다.<sup>8)</sup> 淸 朱乾이 《樂府正義》에서,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가 曹植의 <艷歌行>시의 첫 구 ‘出自薊北門’을 제목으로 따왔는데, 조식의 시는 본래 從軍과는 무관하지만 포조는 이 시를 차용하여 변세시적인 내용을 담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악부를 모의하는 방식으로 ‘轉’과 ‘借’를 제시하였는데,<sup>9)</sup> ‘轉’은 같은 제목의 古辭의 원 주제나 내용을 전환하여 확장 내지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借’는 제목만을 차용하여 주제나 내용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포조의 ‘代’體 모의시는 전부 악부시로 대부분 ‘차’와 ‘전’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代’에는 이런 뜻 외에 ‘대신하다’는 의미도 있다. 秦始皇이 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 南巡하며 위의를 뽐낼 때 이를 지켜본 소년 項羽가 “彼

7) 唐海濤, <鮑照模擬詩的成就>, 《中央圖書館館刊》 20:2(1987), 53쪽.

8) 涂光社, <漢魏六朝的文學模擬——從六朝文學的擬“代”談起>,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4:1(2006.1), 33쪽.

9) 朱乾, 《樂府正義》: “蓋樂府有轉有借, 轉者就舊題而轉出新意, 借者借前題而裁以己意, 擬古者須識此二義, 然後可以參變.”(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166쪽.

可取而代也(저것은 탈취하여 대신할 만하다)(《史記·項羽本紀》)라고 한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代’자에는 자신의 의작이 원작을 능가한다는 자부심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조 모의 악부는 대부분 제목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심지어 원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품도 있다. 劉宋 시기 대부분의 모의 악부가 일반적으로 애정 주제를 선호하는데 비해, 포조의 악부는 대부분 개인의 회포를 기탁하고 있어서 제재 면에서 보다 풍부해진 점도<sup>10)</sup> 그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된다.

‘擬’자는 《說文解字》에서 ‘度’으로 풀이하였고 段玉裁는 ‘揣度’이라고 설명하였다. 《周易·繫辭·上》 제8장에서 말하는 “擬之而後言((세간에서 행동거지를) 헤아려 살핀 후에 말로 할 수 있다)”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擬’에는 모의 대상에 대한 ‘헤아림’과 ‘따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擬制’(제왕의 제도를 본받다)의 경우처럼 ‘본보기로 삼아 따라하다’는 의미도 있고, ‘比擬’처럼 ‘비견하다’, ‘비교하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擬’자에는 모의 대상을 본보기로 삼되 자신의 의작도 원작에 비견할 만한 수준임을 자부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代’體에 비해서는 겸손하지만 역시 모의자의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擬’體 모의시는 모두 28수가 있는데, 악부시로는 <擬行路難> 18수가 있고, 고시로는 <擬古> 8수와 <擬靑靑陵上柏>, <擬阮公夜中不能寐> 등 10수가 있다. 그런데 <擬行路難>의 경우 宋本에는 작품 수를 ‘19수’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다른 17수의 길이가 6구에서 14구까지인 데 비해 제13수는 26구로 불균형적으로 길고, 이 작품의 제10구까지의 전반부는 ‘役夫’의 고통을 서술하고, 제11구 이하 후반부는 ‘思婦’의 비애를 노래하여 내용 면에서 두 작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명목상으로는 ‘行路難’이라는 악부를 본뜬 擬樂府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널리 流傳하던 <고시십구수>를 의식하고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11)</sup> 그가 모의임을 명시한 악부는 모

10) 郭麗平, 앞의 논문, 60쪽.

두 ‘代’體인데 ‘行路難’만이 ‘擬’體라는 점, 이 작품의 모의 대상인 漢의 古辭와 晉 袁山松의 新辭가 본래 長송곡인데 반해 포조는 이 聯詩에서 세상 살이의 갖가지 고난과 고통을 토로함으로써 주제를 바꾸었다는 점, 그리고 원작이 모두 이미 실전된 점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宋本 《鮑氏集》이 이 연시를 <松柏篇>과 함께 일반 고시를 수록한 권8에 넣은 점도 이 가능성의 방증자료가 된다.<sup>12)</sup> 그렇다면 이 유형은 모두 고시를 모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도 대과가 없을 것이다.

‘紹’자는 《說文解字》에서는 ‘繼’라고 풀이하였으니 기본적으로 ‘있다’, ‘계승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尚書·盤庚》의 “紹復先王之業, 底綏四方(선왕의 대업을 계승하고 부흥시켜 사방을 안정시키다)”이 그 예이다. 따라서 ‘紹’體 모의시는 원작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擬’體보다는 더 겸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는 <紹古辭> 일곱 수가 있는데, 제1수는 고시 <橘柚垂華實>을 본뜬 것이다.

‘學’자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본래 ‘斆’의 생략자로 ‘覺悟’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하다’는 의미이다. ‘斆’에는 또 ‘效法’의 의미가 있으니 원작의 정신을 ‘본받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글자에는 또 생략자인 ‘學’이 지닌 ‘학습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禮記·中庸》의 “好學近乎知(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다)”나 《論語·學而》의 “學而時習之(배워서 때때로 익히다)”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莊子·庚桑楚》에서는 “學者, 學其所不能也(學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자신이 할 수 없는 바를 배워서 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學’자에는 ‘模倣’의 의미 외에 ‘본받다’는 의미와 ‘학습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원작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다른 세 유형에 비해 한결 더함을 보여준다. 이 유형으로는 고시를 본

11) 宋永程, <鮑照 <行路難>詩 研究>, 《中國學誌》 제5집(1989), 31-56쪽 참조.

12) 宋本 《鮑氏集》에서 악부시 중 漢魏 고악부를 모의한 ‘代’체는 모두 권3에 수록하였고, 남조 악부 민가 의작은 일반 고시와 함께 권4-권8에 분산 수록하였다. 上海中華書局據宋刻本校刊『四部備要』本 《鮑氏集》 참조.

든 <學古>, 劉楨과 陶淵明을 각각 본뜬 <學劉公幹體> 다섯 수와 <學陶彭澤體> 한 수 등 일곱 수가 있는데 모두 고시이다.

鮑照 모의시의 詩題 별 체제와 모의 대상<sup>13)</sup>

체제	포조 모의시	모의 대상	포조 모의시	모의 대상
代體	代蒿里行	漢 蒿里	代朗月行	傅玄 明月篇
	代挽歌	漢 蒿里, 薤露	代堂上歌行	미상
	代東門行	漢 東門行 4解	代結客少年場行	曹植 結客篇
	代放歌行	漢 孤兒生行	代少年時至衰老行	미상
	代陳思王京洛篇	曹植 京洛篇(失傳)	代陽春登荊山行	미상
	代門有車馬客行	曹植 門有萬里客行	代貧賤苦愁行	미상
	代權歌行	曹叡 權歌行	代邊居行	미상
	代白頭吟	漢 白頭吟	代邙歌行	謝惠連 却東西門行
	代東武吟	漢 東武吟行(失傳)	代白紵舞歌辭 4수	晉白紵舞歌詩 3수
	代別學操	商陵牧子 別學操	代白紵曲 2수	晉白紵舞歌詩 3수
	代出自薊北門行	曹植 艷歌行	代鳴雁行	詩經·邶風·匏有苦葉
	代陸平原君子有所思行	陸機 君子有所思行	代淮南王	晉拂舞歌 淮南王篇
	代悲哉行	曹叡 悲哉行(失傳)	代雉朝飛	犢沐子 雉朝飛操
	代陳思王白馬篇	曹植 白馬篇	代北風涼行	詩經·邶風·北風
代昇天行	曹植 昇天行	代空城雀	古題 없음	
代苦熱行	曹植 苦熱行	代夜坐吟	민가	
		代春日行	古題 없음	
擬體	擬行路難 18수	漢 古辭, 晉 袁山松 新辭(失傳)	擬靑靑陵上柏	古詩十九首 제3수
	擬古 8수	미상	擬阮公夜中不能寐	阮籍 詠懷 제1수
紹體	紹古辭 7수	古詩 橘柚垂華實		
學體	學古 學劉公幹體 5수	미상 劉楨 贈從弟 등	學陶彭澤體	陶淵明 九日閑居 등

13) 모의 대상은 '代體' 악부시의 경우, 宋永程, 《鮑照詩 研究》의 제2장 <鮑照詩의 淵源>, 제2절 <現實主義的 경향>, 1. <樂府와 古詩> 중 '小序'의 표에서 인용.

### Ⅲ. <學劉公幹體>시

郭麗平은 劉宋 시기 모의 풍조가 전대보다 더 성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의 대상도 더욱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경향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이전의 魏晉 시기부터 이어져온 전통적 모의 경향 즉 漢代의 악부와 무명씨의 고시에 대한 모의이다. 둘째는 근대의 문학 명가 즉 건안문인과 陸機에 대한 모의 경향이고, 셋째는 玄風의 영향을 받은 新詩體 즉 阮籍과 陶淵明에 대한 모의인데, 이 두 경향은 이전 시기에 없던 유송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것이다.<sup>14)</sup> 제2장에서 본 것처럼 포조의 경우에도 ‘代’·‘擬’·‘紹’체 모의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악부와 고시 외에도 ‘代’체에는 曹植, 曹睿, 陸機, 傅玄, 謝惠連 등 건안 이후 晉宋 간의 문인을 모의한 작품이 있고 ‘擬’체에는 阮籍의 대표작 <詠懷詩> 제1수를 모의한 작품이 있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學’체이다. 이는 제목상 모의임을 천명한 네 유형 중 원작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두드러진 유형으로, 그 대상을 고시 외에 劉楨과 陶淵明으로 하고 있는데, 고시와 도연명에 대한 모의시는 각각 한 수씩에 불과하지만 유정에 대한 의작은 다섯 수나 되는 점이 주의를 끈다. 유정은 鍾嶸이 <詩品·序>에서 건안시기 대표시인의 하나로 언급하고 <상품>에列入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문인이기는 했지만 당시 성가는 曹植과 陸機에는 못 미쳤다. 謝靈運으로부터 ‘才高八斗’라는 극찬을 받은<sup>15)</sup> 曹植과 張華로부터 남들은 글재주가 모자라 걱정인데 그는 글재주가 많아 걱정이라는 찬사를 받은<sup>16)</sup> 陸機에 대해 ‘代’체로 모의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문학적 위상이 낮았던 유정의 시를 ‘學’체로 모의한 데에는 유정 나름의

14) 郭麗平, 앞의 논문, 59-63쪽.

15) <南史·謝靈運傳>: “天下才共一石, 曹子建獨得八斗, 我得一斗, 自古及今共用一斗.”

16) <晉書·陸機傳>: “(陸)機天才秀逸, 辭藻宏麗, 張華嘗謂之曰: ‘人之爲文, 常恨才少, 而子更患其多.’”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 1. 劉楨 모의 배경

鍾嶸은 《詩品·序》에서 劉楨을 王粲과 함께 曹植 형제를 보필하는 두 보좌 격 시인으로 거명하였고 그의 시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 근원은 古詩에서 나왔다. 意氣를 믿고 기발함을 애호하여 배번 탁월함을 떨치는 것이 많다. 곧은 骨氣는 서리를 이기고 고상한 風度는 時俗을 초월한다. 다만 意氣가 文辭를 지나쳐 조탁과 윤색이 너무 적다.<sup>17)</sup>

여기서 ‘의기를 믿고’ ‘곧은 骨氣는 서리를 이긴다’고 한 것은 유정의 性情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건안칠자는 五官中郎將이던 曹丕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문인 집단으로, 주로 그가 베푼 연회에서 지은 <公宴詩> 등 공동 제목의 시를 많이 창작하였다. 이런 시에는 주인에 대한 찬사와 ‘阿諛’가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다. 曹丕가 베푼 연회에서 曹植이 지은 <公宴詩>는 첫 두 구에 “공자께선 손님을 경애하여서, 연회가 끝나도록 지칠 줄 모른다(公子敬愛客, 終宴不知疲).”라고 하여 이복형인 조비가 손님을 접대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칭송하는 ‘의례적’ 표현을 넣었고, 曹操가 베푼 연회에서 <공연시>를 지은 王粲은 전반부의 연회 묘사에 이어 마지막 여덟 구에서 주인에 대한 감격의 심정을 피력하였는데, 거기에는 “원컨대 우리 어진 주인께서는, 외외함을 하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공의 공업에 부합하노니, 대대로 좇아 갈 수가 없다오(願我賢主人, 與天享巍巍. 克符周公業, 奕世不可追).”라는 ‘아유적’ 표현이 들어 있다. 그러나 유정이 조비가 주최한 연회에 조식과 함께 참여하여 지은 <공연시>에는 이와 다른 점이 있다.

17) 鍾嶸, 《詩品·上品》「魏文學劉楨」條: “其源出於古詩. 仗氣愛奇, 動多振絕. 眞骨凌霜, 高風跨俗. 但氣過其文, 雕潤恨少.”

1. 긴긴 낮을 즐기며 보내었지만	永日行遊戲
2. 즐거움은 여전히 끝이 없다오.	歡樂猶未央
3. 생각은 한밤에도 남아 있으니	遺思在玄夜
4. 어울려 한가로이 또 놀고 싶소.	相與復翱翔
5. 수레들 흰 덮개가 질주를 하고	輦車飛素蓋
6. 종자들은 길가에 가득하다오.	從者盈路傍
7. 달 떠올라 정원을 비추이는데	月出照園中
8. 진기한 나무들은 울창도 하오.	珍木鬱蒼蒼
9. 맑은 냇물 돌 도랑을 지나흘러서	清川過石渠
10. 흐르는 물결은 어방을 넘소.	流波爲魚防
11. 부용 꽃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芙蓉散其華
12. 연꽃은 금빛 못에 넘쳐흐르오.	菡萏溢金塘
13. 신기한 새 물가에 깃을 들이고	靈鳥宿水裔
14. 어진 짐승 숲을 다리 돌아다니오.	仁獸遊飛梁
15. 화려한 집 물가에 늘어서 있어	華館寄流波
16. 확 트여 부는 바람 시원하다오.	豁達來風涼
17. 평소에 아직까지 못 들었으니	生平未始聞
18. 노래한들 상세히 다할 수 없소.	歌之安能詳
19. 붓 던지고 길게길게 탄식을 하니	投翰長歎息
20. 아름다움 아무래도 잊지 못하오.	綺麗不可忘

연회 자체의 화려함을 묘사한 부분은 조식, 왕찬의 <공연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유정의 시는 曹丕가 베푼 ‘긴 낮을 즐겨도 즐거움이 끝이 없는’ 연회의 ‘아름다움을 아무리해도 잊지 못하는’ 탄식은 하였지만 主君에 대한 頌讚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반 <공연시>와 다른 점인데 이는 유정의 강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인품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8)</sup>

유정은 비록 曹氏 부자의 건안 문단의 일원이 되어 文學으로 이름을 떨치긴 하였지만 결코 특이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우직하며 강직하였는데,<sup>19)</sup> 그의 전기인 《三國志·魏書·王粲傳附劉楨

18) 田啓文, <<昭明文選>>之公讎詩比較—以曹植, 王粲, 劉楨三家詩爲說>, 《東方漢文學》 18(2000), 311쪽.

傳》의 裴松之 注에 인용된 《典略》 및 《世說新語·言語》 注에 인용된 《文士傳》에 실린 일화를 통하여 그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건안 16년(210) 조비가 베푼 연회에서 유정은 불경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조비가 자신의 부인 甄氏를 불러 내자 좌중의 모든 인사들이 부복하여 예를 표하였지만 유정만은 ‘平視’를 하며 불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조조가 그의 죄를 물어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20) 유정이 맡은 노역은 磨石 일인데 조조가 감찰을 나갔더니 유정은 정색을 하고 정좌하여 진지하게 돌을 다듬고 있어서 그에게 돌이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유정이 돌의 타고난 굳은 본성을 강조하는 대답을 하자 조조는 크게 웃고 그날로 사면했다는 것이다.21) 사실상 천차나 다름없었던, 자신을 불경죄로 처벌한 조조에게 당당하게 돌의 굳은 본성을 통해 자신의 鯁直한 성품을 빗대어 대답하였다는 이 일화는 유정의 ‘直’한 성품을 잘 보여준다.

포조가 유정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풍뿐만 아니라 이러한 ‘直’한 성품에도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포조는 그 자신이 ‘直’한 성품임을 자신의 시를 통하여 천명한 바 있다. <代白頭吟>에서는 冒頭에서 자신의 ‘直’을 ‘淸’과 함께 거론하며 각각 ‘붉은 명주실로 만든 현’과 ‘옥병 속의 얼음’으로 비유하였다.

19) 宋景昌은 謝靈運의 <擬魏太子鄴中詩序>의 “劉楨, 卓犖褊人”, 劉勰의 《文心雕龍·體性》의 “公幹氣褊” 및 吳祺의 《六朝選詩定論》의 “慙直”과 “鯁直”이라는 표현을 종합하여 유정의 성격을 관통하는 기본 기질을 ‘直’으로 보았다. <論劉楨>, 《殷都學刊》 1992:4, 110쪽.

20) 《三國志·魏書·王粲傳附劉楨傳》 裴松之 注: “其後太子嘗請諸文學, 酒酣坐歡, 命夫人甄氏出拜, 坐中衆人咸伏, 而楨獨平視, 太祖聞之, 乃收楨, 減死輸作.”

21) 《世說新語·言語10》注: “《文士傳》曰: 楨性辯捷, 所問應聲而答, 坐平視甄夫人, 配輸作部使磨石. 武帝至尚方觀作者, 見楨匡坐正色磨石, 武帝問曰: ‘石何如?’ 楨因得喻已自理, 跪而對曰: 石出荊山懸巖之巔, 外有五色之章, 內含卞氏之珍, 磨之不加瑩, 雕之不增文, 稟氣堅貞, 受之自然, 顧其理枉屈糾繞而不得申, 帝顧左右大笑, 即日赦之.”

- |                      |       |
|----------------------|-------|
| 1. 끈기는 붉은 명주 현과 같고   | 直如朱絲繩 |
| 2. 맑기는 옥 병 속의 얼음 같다. | 清如玉壺冰 |

이 두 구는 “현처럼 끈으면 길가에서 죽고(直如弦, 死道邊)”<sup>22)</sup>, “깨끗한 것은 더럽혀지기 쉽다(皎皎者易汚)”<sup>23)</sup>고 한 중국의 옛 가요처럼, 주위의 시샘과 비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이 시의 제3,4 구에서는 “오랜 뜻 그 무엇이 부끄러우랴, 시기 원한 공연히 꼬리를 문다(何慙宿昔意, 猜恨坐相仍)”고 하여, 실제로 자신의 ‘清直’함이 ‘猜恨’을 촉발하였음을 말하고 있다.<sup>24)</sup> <擬行路難> 제6수에서도 시인은 “밥상을 대하여도 먹을 수 없어, 칼 뽑아 기둥 치며 장탄식 그지없을(對案不能食, 拔劍擊柱長歎息)” 수밖에 없는 仕途를 떠나 “고향에 돌아가 맘껏 쉬고자(還家自休息)”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위한다.

- |                        |         |
|------------------------|---------|
| 11.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빈천했거늘  | 自古聖賢盡貧賤 |
| 12. 하물며 외롭고도 끈은 우리들이라. | 何況我輩孤且直 |

여기서는 ‘直’이 ‘孤’와 함께 거론되는데 ‘直’한 성격이 강하면 필연적으로 ‘孤’할 수밖에 없다. 포조의 ‘直’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어둠을 엿보는(伺闇) 박쥐(仙鼠)와는 달리 ‘밝음을 찾는(候明)’ 불나방(飛蛾)의, 불을 향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직선적으로 돌진하는 속성을 찬미한 <飛蛾賦>가 있다.

타는 연기가 넘실거리는 것을 넘어, 번쩍거리는 밝은 불빛으로 향한다.  
외진 풀섶에서 몸을 빼내어, 목숨을 다하는 것은 이 집에서이다. 본래 죽음

22) 《後漢書·五行志一·謠》: “順帝之末, 京都童謠曰: ‘直如弦, 死道邊; 曲如鉤, 反封侯.’”

23) 《後漢書·黃瓊列傳》: “常聞語曰: ‘嶢嶢者易折, 皎皎者易汚.’”

24) 자세한 것은 宋永程, <鮑照의 <代白頭吟>시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51 (2008.6) 참조.

을 가벼이 여겨 얻기를 추구하는 것이니, 비록 썩어 문드러져도 무엇을 슬피 하라. 어찌 남산의 얼룩 표범을 배워, 운무를 피하여 바위굴에 숨어 있으랴.<sup>25)</sup>

여기에는 정의를 추구하여 기꺼이 헌신하려는 그의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바로 청년 시절 포조의 耿直하고 剛強한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sup>26)</sup>

포조는 젊은 나이에 臨川王 劉義慶에게 시를 바쳐 자신의 포부를 밝힌 것을 계기로 임친왕의 侍郎으로 발탁된 일이 있다. 시를 바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대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발끈 화를 내며, “천년 동안 英才異士로서 묻혀버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셀 수 있을 정도이겠는가! 대장부가 어찌 지혜와 재능을 감춰둔 채 난초인지 썩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종일토록 빈둥거리면서 체비 참새와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결국 ‘貢詩言志’한 일화가 전해진다.<sup>27)</sup> 이 역시 ‘南山文豹’가 운무에 털빛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하고 암굴 속에 숨어 있듯이 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곧장 불로 날아드는 불나방을 닮으려고 하는 포조의 직선적 성격을 말해주는 일화이다. 포조와 유정은 성품 면에서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포조는 유정의 강직한 성품과 곳곳한 기상에 매료되었고 그러한 기질이 반영된 시풍을 좋아하여 ‘학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錢仲聯, 앞의 책, 49쪽, <飛蛾賦>: “凌燄煙之浮景, 赴熙焰之明光. 拔身幽草下, 畢命在此堂. 本輕死以邀得, 雖糜爛其何傷. 豈學山南之文豹, 避雲霧而巖藏.”

26) 丁福林, <潦倒坎坷的不幸文人——鮑照(上)>, 《古典文學知識》2008:5, 84쪽.

27) 《南史·臨川烈武王道規傳附鮑照傳》: “照始嘗謁義慶未見知, 欲貢詩言志, 人止之曰: ‘卿位尚卑, 不可輕忤大王.’ 照勃然曰: ‘千載上有英才異士沈沒而不聞者, 安可數哉. 大丈夫豈可遂蘊智能, 使蘭艾不辨, 終日碌碌, 與燕雀相隨乎.’ 於是奏詩, 義慶奇之. 賜帛二十四, 尋擢爲國侍郎, 甚見知賞.”

2. 모의 양상

포조의 <學劉公幹體>는 모두 다섯 수이다. 먼저 제1수를 보자.

포조 <學劉公幹體> 제1수

1. 벼슬을 하려 해도 王事가 없고	欲宦乏王事
2. 主君과 맺으려도 사은은 멀다.	結主遠恩私
3. 수양할 뿐 명예는 좇지 않는데	爲身不爲名
4. 책 흩어져 부질없이 장막만 가득.	散書徒滿帷
5. 얼음이 이어지는 동짓달 상순	連水上冬月
6. 눈 헤치고 채마밭의 아욱 뜯는다.	披雪拾園葵
7. 聖君의 덕 세상 밖도 다 비추지만	聖靈燭區外
8. 이 몸은 참으로 버림 받았다.	小臣良見遺

이 시의 제3,4구는 유정의 <雜詩>의 제1,2구 “직무의 일 이리저리 가득 쌓인 채, 글과 먹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職事相填委, 文墨紛消散).”를, 제 5,6구는 <贈從弟> 제1수의 “채마밭에 아욱이 없으라마는, 아름답다 심연에서 나는 이것은(豈無園中葵, 懿此出深澤).”을, 제7,8구는 <贈五官中郎將> 제4수의 “소신은 진실로 고루하여서, 애써본들 어찌 능히 좇아가리오(小臣信頑鹵, 儂俛安能追).”를 각각 변용하여, ‘벼슬 하려 해도 私恩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건안 문인 집단에 속하였지만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유정에게서, 포부를 펴지 못한 채 “바장이며 날갯죽지 처뜨릴(蹠躩垂羽翼)”(<擬行路難(6)>)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유정의 강직한 기풍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贈從弟> 3수와 <贈徐幹> 등이다. 그 중에서도 매서운 북풍에도 흔들림 없이 ‘歲寒後彫’하는 松柏의 본성을 읊은 <贈從弟> 제2수가 가장 대표적이다. 포조의 <學劉公幹體> 제2수는 바로 이 작품을 본뜬 것이다.

포조 <學劉公幹體> 제2수

- |                       |       |
|-----------------------|-------|
| 1. 자욱이 끼어있는 차가운 안개    | 噎噎寒野霧 |
| 2. 푸룽푸룽 울창한 음산의 송백.   | 蒼蒼陰山柏 |
| 3. 나무는 우뚝한데 안개 서렸고    | 樹迥霧縈集 |
| 4. 산은 차가운데 바람 급하다.    | 山寒野風急 |
| 5. 세모엔 사물 모두 다 시드는데   | 歲物盡淪傷 |
| 6. 꾀꾀하게 누구 위해 홀로 섰는가? | 孤貞爲誰立 |
| 7. 나무는 제 스스로 곧을 수 있어  | 賴樹自能貞 |
| 8. 자취가 쓸쓸한 것 따지지 않네.  | 不計迹幽澁 |

유정 <贈從弟> 제2수

- |                      |       |
|----------------------|-------|
| 1. 우뚝우뚝 높이 선 산 위 소나무 | 亭亭山上松 |
| 2. 씩아씩아 불어오는 골짜기 바람  | 瑟瑟谷中風 |
| 3. 바람소리 저리도 매서웁지만    | 風聲一何盛 |
| 4. 솔가지는 저리도 굳건하다네.   | 松枝一何勁 |
| 5. 얼음 서리 바야흐로 참혹하지만  | 冰霜正慘淒 |
| 6. 해가도록 언제나 단정하다네.   | 終歲常端正 |
| 7. 매우 추위 어찌 아니 만나라마는 | 豈不罹凝寒 |
| 8. 송백은 굳은 성품 본디 지녔네. | 松柏有本性 |

‘산과 들은 차갑고 바람은 거세어, 온갖 사물이 조락하는’ 혹한의 계절에도, 꾀꾀하고 푸르게 서 있는 ‘음산의 송백’을 비유로 활용하여, 자신의 고고하고도 강직한 성품을 비유하면서, 상황이 아무리 여의치 못해도 ‘歲寒松柏’처럼 꾀꾀하게 본심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두 시 모두 제1-6구에서는 열악한 겨울 환경에도 고고하게 우뚝 선 송백의 자태를 그렸고, 제7,8구에서 그것이 바로 송백의 굳은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시는 주제나 소재 및 비유의 방식은 물론이고 시의 구조와 풍격도 유정의 작품과 완벽할 정도로 일치한다.

제3수는 ‘桃李’와 ‘朔雪’을 각각 소인과 군자의 비유로 활용하여 고난에

굴하지 않는 군자의 ‘皎潔’한 절개를 읊었는데, 비유의 방식이나 시의 구성이 유정의 <贈從弟> 제3수를 ‘학습’했음이 분명하다.

포조 <學劉公幹體> 제3수

- |                       |       |
|-----------------------|-------|
| 1. 북풍이 북방의 눈 휘몰아쳐서    | 胡風吹朔雪 |
| 2. 천리 먼 길 龍山을 넘어와서는,  | 千里度龍山 |
| 3. 그대의 옥 누대에 모여들어서    | 集君瑤臺上 |
| 4. 두 기둥 사이에서 날아 춤춘다.  | 飛舞兩楹間 |
| 5. 이 시기는 저절로 아름다우니    | 炫晨自爲美 |
| 6. 따사롭고 고운 계절 피해야 한다. | 當避艷陽天 |
| 7. 따사롭고 고운 계절 도리 칠에는  | 艷陽桃李節 |
| 8. 교결함도 아름다움 될 수 없으니. | 皎潔不成妍 |

이 시는 劉履(《選詩補注》), 方回(《文選顏鮑謝詩評》), 吳伯其(《六朝選詩定論》), 王夫之(《古詩評選》), 方東樹(《昭昧詹言》), 王闈運(《八代詩選》) 등이 모두 평어를 남길 정도로 청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감명을 준 시이다. 劉履는 이 시의 창작 동기로 포조가 “이간을 당해 소외된 후에 지었기에, 북방의 눈을 빌려 비유한”<sup>28)</sup> 것으로 보았는데, 포조의 상소문 <謝解禁止表>와 <謝永安令解禁止啓>를 통해 그가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謝隨恩被原疏>를 통해 남의 비방을 받은 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포조의 <代白頭吟>이 劉履의 지적처럼 “남의 이간질로 주군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빌려 所懷를 비유함으로써(爲人所間, 見棄於君, 故借是題以喻所懷)” “곧기는 붉은 명주 현과 같고, 맑기는 옥 병 속의 얼음 같은” 정직과 결백을 표명한 것처럼, 이 시도 이간과 비방이 난무하는 ‘桃李節’을 피해 歲寒에 皎潔함을 뽑내는 ‘朔雪’을 자신의 결백을 보여

28) 錢仲聯, 앞의 책, 360쪽. <集說>: “(劉坦之曰: 此明遠)被間見疏而作, 乃借朔雪爲喻.”

29) 자세한 것은 宋永程, <鮑照의 <代白頭吟>시에 대하여>, 213-218쪽 참조.

주는 비유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영물시 <詠白雪>시에서 “백규는 참으로 스스로 희지만, 눈빛이 고옴에는 미치지 못한다(白珪誠自白, 不如雪光妍)”고 하여 눈의 光明皎潔한 이미지에 고상하고 순결한 품격과 정대하고磊落한 군자의 기상을 담아 비유로 활용한 것<sup>30)</sup>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정 <贈從弟> 제3수

1. 봉황새 남쪽 산악 모여들어서	鳳皇集南嶽
2. 외로운 대 뿌리에 배회하노라.	徘徊孤竹根
3. 마음에 차지 않은 무엇이 있어	於心有不厭
4. 날개 펼쳐 붉은 놀에 올라가노라.	奮翅凌紫氛
5. 어찌 항상 힘들고 괴롭잖으리	豈不常勤苦
6. 참새와 어울리기 부끄러워서라.	羞與黃雀群
7. 어느 때에 그 자태 다시 오려나	何時當來儀
8. 성명한 군주를 기다리노라.	將須聖明君

‘참새’와 어울리기 싫어 힘들고 고달프지만 외로운 대 뿌리를 배회하다가 날개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鳳凰’의 이미지와 ‘桃李’의 계절을 피해 흑한에 음산을 넘어 ‘瑤臺’로 날아 춤추는 ‘朔雪’의 이미지가 서로 유사하고 시의 구성도 매우 흡사하다.

제4수는 유정의 <公宴詩>에서 오관중랑장 조비가 베푼 연회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 중 제11,12구 “부용 꽃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연꽃은 금빛 못에 넘쳐흐르오(芙蓉散其華, 菡萏溢金塘).”의 뜻을 확대하면서, ‘盛明’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30)李云, <南朝詠雪詩論>, 《廣西梧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2:2(2006.6), 14쪽.

포조 <學劉公幹體> 제4수

- |                        |       |
|------------------------|-------|
| 1. 연꽃이 맑은 물에 자라나는데     | 荷生淥泉中 |
| 2. 푸른 잎 동그란 게 그림쇠 같다.  | 碧葉齊如規 |
| 3. 표풍 불어 흐르는 안개 흩으니    | 廻風蕩流霧 |
| 4. 구슬방울 줄기 타고 굴러 내린다.  | 珠水逐條垂 |
| 5. 이 황금 연못은 표범 무늬 아롱지고 | 彪炳此金塘 |
| 6. 그대의 옥 연못은 아름답게 빛난다. | 藻耀君玉池 |
| 7. 세상이 몰라줘도 근심 않지만     | 不愁世賞絕 |
| 8. 두려운 건 盛明이 사라지는 것.   | 但畏盛明移 |

제5수는 유정이 불경죄로 처벌된 뒤 다시 文學으로 복귀한 후 불평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贈徐幹> 제1수의 대의를 활용하였다.

포조 <學劉公幹體> 제5수

- |                         |       |
|-------------------------|-------|
| 1. 흰 태양 하늘 북반 다디를 적에    | 白日正中時 |
| 2. 천하는 밝은 빛을 함께 나눈다.    | 天下共明光 |
| 3. 북쪽 동산 자그마한 풀이 있는데    | 北園有細草 |
| 4. 한낮에도 서리를 머금고 있다.     | 當晝正含霜 |
| 5. 소외 영예 이처럼 어긋나는데      | 乖榮頓如此 |
| 6. 나 홀로 향기난들 무슨 소용 있으리. | 何用獨芬芳 |
| 7. 금을 당겨 그대 위해 노래하지만    | 抽琴爲爾歌 |
| 8. 현 끊어져 한 악장도 못 이룬다오.  | 絃斷不成章 |

유정 <贈徐幹> 제1수

- |                      |       |
|----------------------|-------|
| 1. 서로 멀리 떨어졌다 누가 말하나 | 誰謂相去遠 |
| 2. 西掖의 이 담장만 막을 뿐인데. | 隔此西掖垣 |
| 3. 제한이 매우 엄한 禁中이어서   | 拘限清切禁 |
| 4. 속마음을 털어놓을 길이 없구려. | 中情無由宣 |
| 5. 그대 생각 마음속이 잠겨버려서  | 思子沉心曲 |

6. 장탄식에 말조차 할 수 없구려.	長歎不能言
7. 일어났다 앉았다 두서도 없이	起坐失次第
8.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옮겨 다니오	一日三四遷
9. 北寺門 바깥으로 걸어 나가서	步出北寺門
10. 西苑 뜰을 아득히 바라본다오.	遙望西苑園
11. 가는 버들 양 길가에 줄지어 섰고	細柳夾道生
12. 모난 연못 맑은 샘물 가득 고였소.	方塘含清源
13. 가벼운 잎 바람 따라 굴러다니고	輕葉隨風轉
14. 나는 새는 어찌 저리 펄펄 나는지.	飛鳥何翩翩
15. 헤어지니 쉽사리 감동이 되어	乖人易感動
16. 눈물 흘러 옷깃까지 이어진다오.	涕下與衿連
17. 우러러 밝은 햇빛 바라보노니	仰視白日光
18. 환하게 높이높이 달려 있구려.	皦皦高且懸
19. 팔방을 두루두루 모두 비추어	兼燭八紘內
20. 온갖 사물 치우침이 전혀 없다오.	物類無頗偏
21. 나는 홀로 깊은 감회 끌어안으니	我獨抱深感
22. 끼어들어 어울릴 수가 없구려.	不得與比焉

태양은 치우침이 없이 팔방을 두루 비추지만, 자신만은 깊은 감회에 젖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눈물 흘러 옷깃까지 적시는 유정의 모습에서, 포조는 동료들의 시기와 원한으로 소외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흰 태양 하늘 북판 다다를 적에, 천하는 밝은 빛을 함께하지만” ‘북쪽 동산에 있는 작은 풀’만이 ‘한낮에도 서리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소외와 영예가 어긋나는’ 사회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學劉公幹體> 다섯 수 중 제1,5수는 소외된 시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다루어, 仕途에서의 실의를 읊었고, 제2,3수는 고고한 절조를 비유를 통하여 표현하였으며, 제4수는 盛明의 소실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모의 양상은 제2,3,5수는 기본적으로 유정의 독립된 작품의 주제와 소재 또는 구조와 비유 등을 ‘학습’하였으며 제2,3수의 경우 시풍도 흡사하다. 제

1,4수는 한 작품 전체를 ‘학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현이나 의경을 빌려와 변용하였다.

鮑照 <學劉公幹體>의 모의 양상

작품	주제	모의 대상	모의 양상
제1수	소외 의식	<雜詩><贈從弟(1)> <贈五官中郎將(4)>	부분적인 표현 변용
제2수	굳은 절조	<贈從弟(2)>	주제, 소재, 비유 방식, 구조, 시풍
제3수	고결한 품성	<贈從弟(3)>	주제, 구성, 비유 방식, 시풍
제4수	盛明 소실 염려	<公宴詩>	부분적인 표현 변용
제5수	소외된 처지	<贈徐幹(1)>	주제, 부분적 비유 방식

#### IV. 結 語

종영은 《詩品·序》에서 당시 문인들이 5언시 창작에 몰두하던 상황과 포조와 謝朓에 대한 경도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날 선비들의 풍속은 이[오언시 창작] 기풍이 치열하다. 겨우 옷을 감당할 만하고 겨우 小學에 나아갈 나이만 되면 기꺼운 마음으로 이 일에 분주하다. …… 다음으로 경박한 무리들이 있어서, 조식과 유정을 예스럽고 졸렬하다고 비웃고 포조를 복희씨 이전의 윗대 사람이라고 하고 사조를 고금의 독보적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포조를 스승으로 삼으면서도 끝내 포조의 “한낮에 저자 거리 가득 넘치고”(〈代結客少年場行〉 제15구)에 못 미치고, 사조를 배우면서도 “피꼬리는 푸른 가지 건너서 간다”(虞炎, 〈玉階怨〉 제2구)를 얻는데 그친다. 부질없이 자신을 고상한 文士趣味에 버리지 만 문장의 부류와는 연관도 없다.<sup>31)</sup>

31) 《詩品·序》: “今之士俗, 斯風熾矣. 纔能勝衣, 甫就小學, 必甘心而馳騫焉. …… 次有輕薄之徒, 笑曹劉爲古拙, 謂鮑照羲皇上人, 謝朓今古獨步. 而師鮑照, 終不及‘日中市朝滿’; 學謝朓劣得‘黃鳥度青枝’. 徒自棄於高聽, 無涉於文流矣.”

종영은 먼저 당시 문인들이 오언시 창작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자신이 上品에 넣은 뛰어난 시인 조식과 유정 같은 문인들의 시를 古拙하다고 치지도와하면서도 中品에 넣은 포조와 사조 같은 시인의 시만을 최상급으로 간주하여 모의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들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을 개탄한 것이다.

당시 소위 文士들이 ‘羲皇上人’으로 여기던 포조는 실상 그들이 ‘古拙’하다고 비웃은 유정의 시에 이처럼 매료되어 ‘학습’하였던 것이다. 포조가 유정에 경도된 주요 이유는 바로 ‘耿直’한 인품과 “의기를 믿고 기발함을 애호하여 매번 탁월함을 떨치는 것이 많으며, 곧은 골기가 서리를 이기고 고상한 풍도가 時俗을 초월하는” 시풍에 매료된 때문이었다.

<學劉公幹體> 다섯 수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詩經》 이래의 전통적인 간결한 비유를 통하여 시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불우감의 토로와 함께 孤直한 寒士의 고고한 절조를 노래하고 있어서, 劉楨의 시풍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四部備要』本 《鮑氏集》(영인본; 上海中華書局據宋刻本校刊)  
曹旭·葉當前 편저, 《建安七子》(제1판; 北京: 中華書局), 2010.2.  
周振甫 주, 《文心雕龍注釋》(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11.  
李哲理 역주, 《역주 시품》(과주: 창비), 2007.2.  
呂德申, 《鍾嶸詩品校釋》(제1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4.  
徐震堯, 《世說新語校箋》(초판;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1.  
吳台錫, 《黃庭堅詩研究》(대구: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吉川幸次郎 저, 陳順智·徐少舟 역, 《中國文學史》(제1판;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7.9.

- 《後漢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三國志》(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晉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南史》(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宋永程, <鮑照 模擬詩 試探>, 《陸士論文集》 24, 1983.6.  
 宋永程, <鮑照 <行路難>詩 研究>, 《中國學誌》 제5집, 1989.  
 宋永程, <用典을 통해 본 鮑照 詩의 楚辭 受容>, 《中國學誌》7, 1992.2.  
 宋永程, <鮑照의 前代 文人詩 受容>, 《中國學誌》 8, 1993.2.  
 宋永程, <鮑照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4.8.  
 宋永程, <鮑照의 <代白頭吟>시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51, 2008.6.  
 池世樺, <劉楨 詩의 ‘氣過其文, 雕潤恨少’ 고찰>, 《中國學研究》 20, 2001.6.  
 車柱環, <劉楨의 詩>, 《中國學報》 13, 1972.  
 郭麗平, <劉宋時期的模擬詩創作與文學接受>,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8:5, 2010.9.  
 唐海濤, <鮑照模擬詩的成就>, 《中央圖書館館刊》 20:2, 1987.  
 涂光社, <漢魏六朝的文學模擬——從六朝文學的‘擬’‘代’談起>,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4:1, 2006.1.  
 宋景昌, <論劉楨>, 《殷都學刊》 1992:4.  
 李云, <南朝詠雪詩論>, 《廣西梧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2:2, 2006.6.  
 田啓文, <《昭明文選》之公讎詩比較——以曹植, 王粲, 劉楨三家詩爲說>, 《東方漢文學》 18, 2000.  
 丁福林, <潦倒坎坷的不幸文人——鮑照(上)>, 《古典文學知識》 2008:5.  
 丁福林, <從<飛蛾賦>和<尺蠖賦>看鮑照前後期人生態度的轉變>, 《古典文學知識》 2010:9.  
 Robert Shanmu Chen,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With a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of His Poems*. Ph.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1989.  
 藤井 守, <鮑照の樂府(一)>, 《中國中世文學研究》 4, 1965.3.

## &lt;中文提要&gt;

梁鍾嶸早已提及齊梁時“有輕薄之徒，笑曹(植)、劉(楨)爲古拙，謂鮑照羲皇上人，謝朓今古獨步。而師鮑照終不及‘日中市朝滿’；學謝朓劣得‘黃鳥度青枝’”的風氣。其實鮑照本身反而尊重劉楨并且學習其詩，而寫出了五首《學劉公幹體》詩。鮑照在詩題上闡明模擬的共有79首，都在原題前面加上一個動詞，如“代”、“擬”、“紹”、“學”等。其中“學”體對原詩最持有尊敬的態度，此體共有七首，其中《學劉公幹體》占五首，爲數最多，這正說明他對劉楨的敬佩。

鮑照對劉楨之敬佩，首先在於其爲人耿直。劉楨曾經在建安16年，在曹丕主持的宴會上“平視”甄夫人，因而“以不敬被刑”。鮑照本身之爲人亦復如此，他親口說自己爲人“直如朱絲繩，清如玉壺冰”(《代白頭吟》)，“孤且直”(《擬行路難》其六)。鮑照還有一篇《飛蛾賦》頌讚“本輕死以邀得”而“赴熙炤之明光”的“飛蛾”。這篇賦裏的“飛蛾”形象恰似鮑照本身，他曾經像“飛蛾”般“敢忤大王”向臨川王劉義慶“貢詩言志”。

《學劉公幹體》其一、五兩首，寫出在仕途上潦倒坎坷的不幸處境；其二、三兩首，表現出‘歲寒松柏’之高氣大節；其四一首抒發“但畏盛明移”的憂患意識。其一、四兩首轉用或者引伸劉楨詩歌的部分表現或者意境。其二、三、五三首，不但“學習”劉楨特定詩歌的題材、結構和比喻，而且其風格也如出一轍。這正反映鮑照對劉楨詩歌“仗氣愛奇”與“真骨凌霜”的特點抱着敬佩之心的。

주제어 : 鮑照, 學劉公幹體, 劉楨, 耿直, 仗氣愛奇, 真骨凌霜